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발행인 이기평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전민지
주소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 11호

송호신문 窓

가슴 벅찬 대학생활의 첫 시작 - 2016학년도 제17회 입학식





2016학년도 제 17회 입학식이 2월 26일 오전 11시, 교내 월계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입학식은 이기평 총장과 교직원, 재학생, 신입생과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입학식은 개회사, 국민의례, 기도, 학사경과보고에 이어 입학선서와 장학증서 수여, 환영사 및 교수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16학번 신입생은 총 정원 내 378명, 정원 외 127명이며 전체 수석 김만숙(사회복지과), 차석 박아경(관광대명리조트과) 학생이 각각 수상을 했다.

이기평 총장은 환영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입학생과 가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난 20년 간 대학은 과감한 교육시설투자와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해가 다르게 명문대학으로의 위상과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은 조교와 임원학생들을 따라 학교를 둘러본 후, 각 과의 강의실에서 교수들과의 인사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가졌다.

소선민 기자

직장인을 위한 산업체 위탁 과정 신설

사회복지과 정규 과정 개강식 이루어져



우리대학교(총장 이기평)가 지난 3월 5일 토요일 창조관 3층 관광어학실에서 사회복지과 산업체 위탁과정 개강식 및 첫 수업을 실시했다.

이 날 개강식에는 교학부처장 박달수교수, 사회복지과 학과장 이광모교수, 위탁과정 책임교수 신길섭교수, 외래교수 김영욱교수, 김지현교수, 배기분교수, 강현옥교수, 학생 김선화 외 17명이 참석했다.

산업체 위탁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 경력이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매년 3.1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 또는 농·어업인, 개인사업자 등을 입학 지원 자격 요건으로 한다.

교학부처장 박달수 교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대학생활을 하지 못한 직장인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민지 기자

2015학년도 제4회 학사학위 및 제 15회 전문학사 학위 수여식 개최

사회를 향한 첫걸음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





우리대학교에서 지난 2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2015학년도 제4회 학사학위 및 제15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 전문학사학위는 377명,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는 9명, 총 386명이 학위를 받았다.

최금순 이사장, 이기평 총장, 영철 국회의원, 조태진 전 횡성군수, 정명철 송호대학교 동문회장, 엄경익 횡성축협 조합장, 박순업 횡성문화원 원장, 박종태 농협은행 횡성군지부 지부장, 김선심 선덕의료재단 이사장 등 외빈객들도 참석을 하여 졸업식을 빛내주었다.

학위수여식은 임용광 교학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이기평 총장과 이사장의 학위, 상장수여 및 졸업식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내빈축사와 교가제창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졸업식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회복지과 김혜영 학생, 호텔외식조리과 공경숙 학생이 전체수석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30명이 공로상, 횡성군수상, 횡성군의회 의장상, 특별상 수상자로 표창을 받았다.

이기평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졸업생 여러분은 대학생활을 통해 훌륭한 지식과 겸손한 인성을 갖춘 지성인이 되었다"고 말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포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전하였다.

소선민 기자

사회복지과, 스포츠레저과 전공심화과정 인가





우리대학교는 2016년 1월에 교육부로부터 사회복지과, 스포츠레저과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았다. 인가 받은 과정 모두 야간과정으로, 각 학과의 정원은 사회복지학과 15명, 스포츠레저학과 20명이다.

이번 인가를 받기 전, 기존의 심화과정은 9개월 이상의 동일분야 산업체 재직경력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었는데 반해 올해부터는 졸업 후 곧바로 아무런 경력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인가를 받았다.

스포츠레저과의 전공심화과정은 이번에 처음 생긴 과정으로 사회복지과 심화과정과 동일하게 아무런 경력 없이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신재영 기자

홈페이지 : www.songho.ac.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onghocollege

당신의 열정을 캐스팅합니다.

송호대학교 '窓' 신문사 4기 수습기자 모집

수습기자 지원 자격
첫째, 16학번 새내기
둘째, 배우려는 자세
셋째, 성실성
넷째, 책임감
다섯째,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수습기자 특전
첫째, 장학금(한 학기 96만원)
둘째, 연 2회 즐거운 워크숍
셋째, 기사 및 인터뷰 작성 특강
넷째, 선배 기자들의 애정

〈지원 문의〉 전화 (033-340-1027) 편집국장 전 민 지 (010-7277-1226)

대학취업지원관사업 '4년 연속 우수대학' 강원권 전문대학 중 유일!



우리대학교(총장 이기평)가 '2015년 대학취업지원관사업' 우수대학에 선정되어 강원권 4년 연속 우수대학을 달성한 유일한 대학이 되었다.

'대학취업지원관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해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알선 등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대학교는 취업지원관을 채용하여 1:1 맞춤형 진로·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특강, 입사지원서클리닉, 면접클리닉 등 취업지도에 힘썼다.

또한 취업지원관 전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여 재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반정자 취업지원관은 "방학 중에도 온라인으로 이력서 및 면접지도를 요청하고 자발적으로 그룹을 지어 토론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취·창업지원센터 한철용 교수는 "청년실업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청년 취업 빙하기속에서도 어려운 취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학년별, 단계별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과 취업지도를 계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전민지 기자

동계올림픽 맞춤 인재 양성과정 개설



우리대학교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동계올림픽 경기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지난 1월 23일, 대한스키협회, 평창올림픽조직위위원회와 공동으로 둔내면 웰리힐리파크에서 교육생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계올림픽 경기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우리대학교는 현재 동계스포츠 종목인 '스키·스노보드 전문지도자과정'을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종목별 특성과 코스관리법, 심판법, 경기규칙과 동계스포츠 종목의 자격증 취득방법 등이 있다.

채용식 평생직업교육대학장은 "동계올림픽 경기전문인력양성과정(K-Legacy)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 대한민국 인적유산 브랜드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민지 기자

2016학년도 등록금 4년 연속 동결



우리대학교는 지난 1월 20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16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년간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학년도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46.5%(대학정보공시 기준)로 반값등록금 현실화에 힘쓰고 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 취지로는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고려하여 등록금 부담 경감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며, "장학제도 또한 가계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우리대학교는 2016학년도 신입생 중 최초등록자에게 등록금의 20~3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김한솔 기자

유아교육과 첫 공립유치원 임용고시 최종합격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생인 김연진(10학번)이 '2016학년도 강원도 교육청 공립유치원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 하였다.

김연진은 2013년도 2월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공립단설유치원 대체교사의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해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1차 시험(교직논술, 교육과정, 한국사)과 2016년 1월 5일 화요일부터 1월 7일 목요일까지의 2차 시험인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평가(면접, 교육계획안 작성, 수업시연)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최종 임용고시에 합격하였다.

김연진 동문은 신규임용후보자 직무연수 이수 후에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3월 1일부터 화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에 임용 발령을 받았다.

그는 송호인들에게 "대학생활부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여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특히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는 "송호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들어온 것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며 모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소선민 기자

임상병리과 국가고시 20명 전원 합격



지난 2015년 12월 19일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최하는 임상병리사 국가고시가 시행되었다. 이날 시행된 국가고시에서 우리대학교 학생들 20명이 전원 합격을 하였다.

임상병리과는 2012년도에 신설되었으며, 2016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학과에서는 멘토링제, 방과 후 프로그램, 학술포럼, 연구소 견학, 현장실습, 외부 강사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여는 등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고시에 합격한 학생은 "학교에서 국가고시를 보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 독서실과 전용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전원합격이라는 쾌거는 학과 교수님들의 열정어린 지도와 학생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배들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여 해마다 전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신재영 기자

횡성대성병원과 산학협력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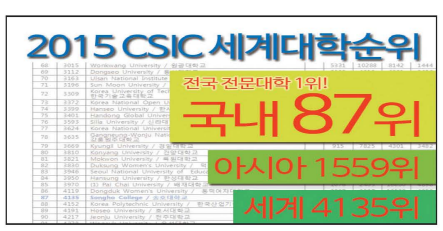
지난 3월 4일 오후 6시 30분, 송호관 세미나실에서 우리대학교(총장 이기평)가 횡성대성병원(원장 신형철)과 산학협력협약을 맺었다.

본 협약은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시설공동 활용을 통한 교육 효과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며, 협약식에는 이기평 총장, 횡성대성병원 신형철 원장 등 내빈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과 산업체 간의 상호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 및 체계 확립 ▲교수의 산업체 연수 및 현장실무자의 특강지원 협조 ▲학생 현장실습 중심 교육 실현, 실습지도 체제 공동 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운영 ▲자격증 취득 및 우수인력의 취업연계 협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전문교재의 공동개발 ▲기술개발 과제 공모 시 공동 연구 추진 ▲학술정보 및 간행물의 상호교환 ▲양 기관의 시설기자재 및 실험실습기자재 공동 활용 등이다.

이기평 총장은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고 전하며 "매년 배출되는 의료전문인재들의 역량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발전 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민지 기자

스페인 CSIC 평가에서 국내 전문대학 중 1위



CSIC(스페인국가위원회,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ificas)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우리대학교가 전국 전문대학 중에 1위를 차지했다.(http://www.webometrics.info) 평가를 실시한 CSIC는 유럽 최초로 스페인에서 만든 대학평가기관으로 평가기준은 평판성, 대외영향력, 개방성, 우수성 등 4부문이다. 또한, 토마토CSR연구소가 발표한 2015 '전문대학 지속지수'는 지속가능성에 근거한 전문대학 종합평가로 2015년도 평가에서 우리대학이 53위를 차지했다.

신재영 기자

‘신입생 전공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최

기초직업능력과 전공수행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



우리대학교가 2016학년도 수시합격 입학예정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23일부터 24일 1박 2일간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신입생 전공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직업대학 육성사업단에서 주최했으며, 주제는 ‘예비 송호인이여! 꿈을 깨고 현실을 직시해라’이다. 23일은 인·적성 및 심리검사와 전문가 초청 특강(꿈, 희망, 대학생활 등 주제 90분),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4일에는 직업기초능력 및 전공수행능력 진단평가,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기숙사 신청 등에 대한 설명과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기평 총장은 “2016학년도 예비신입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첫 운을 띄우면서 “학교생활 중 소통과 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언제든 제가 있는 곳으로 부담 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며 학생과의 진정한 소통의 의지를 보였다.

우리대학교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초학습능력평가와 인·적성검사를 통해 신입생의 기초직업능력을 평가하고 학생상담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수준별 강의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생활 상담 시 학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선민 기자

통학버스 노선 변경 및 요금 안내

2016년도 1학기부터 우리대학교의 통학버스 노선이 변경되었다.

상봉 노선 중 ‘남양주 경찰서 정거장’이 공사로 인해 ‘남양주 경찰서 뒤편 다산 신도시 주택 전시관 앞(지금동 삼거리 버스 정류장)’으로 변경되었고 기흥노선 중 ‘기흥역 8번 출구 버스정류장 맞은편’이 ‘강남대역 방면 수원 컨트리클럽 버스정류장’으로 변경됐다. 또한 남양주 노선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그리고 통학버스 요금도 원주 노선은 1,000원(편도), 서울 및 경기 노선은 5,000원(편도), 양평 노선은 4,000원(편도), 용인 노선은 5,000원(편도), 남양주 노선은 5,000원(편도), 춘천 노선은 4,000원(편도)으로 각각 변동되었다.

김한솔 기자

201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협약 체결



우리대학교(총장 이기평) 산학협력단이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3월 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서 “201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는 고용노동부 이창열 원주지청장, 한국폴리텍대학 최형기 처장, 횡성군청 기업유치지원과 김옥환 과장, 원주시 기업지원과 송재기 과장,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영남 단장,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 사업 김나영 책임교수(호텔외식조리과)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대학교는 이번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4번째 사업을 진행중이다.

(▲2014년 참살이 명장(힐링전문가, 횡성한우 와인 스테이크 전문가, 파티전문가), 지역형 헬스케어 전문가, ▲2015년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 사업)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 사업은 2015년에 이어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며 3월 7일(월)부터 4월 1일(금)까지 교육생을 모집하여 4월 19일 개강한다.

본 사업의 책임자 김나영 교수는 “2016년에는 업체현장실습교육을 추가하여 현장에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지 기자

화천군과 MOU체결, 축제 서비스질 향상 기대



지난 1월 7일 화천군 회의실에서 우리대학교(총장 이기평)와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한(韓)브랜드 사업’ 발굴 운영과 화천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협력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화천산천어축제’에 방문하는 관광객 대상 축제 종사자의 서비스 질 향상, 축제 명품화 및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지속적인 서비스 인력 양성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우리대학교 이기평 총장은 “이번 화천군과의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에 종사하는 지역민과 대학생들의 서비스마인드 고취 등 지역대학으로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고, 이를 시작으로 더욱 더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화천군 최문순 군수는 “MOU 체결을 통해 화천산천어축제기간 중 축제에 종사하는 화천 지역민과 대학생 대상으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전문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위상 강화와 이미지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도연 기자

겨울방학특강 전공 관련 잠재적 역량 이끌어 줄 수 있는 기회

우리대학교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재학생들에게 수강료, 급식비, 기숙사비를 지원해주며 동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1개과 중에 10개과가 전공을 살린 특강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유아교육과(동화구연과 교재교구만들기), 관광대명리조트과(리조트 실무중국어와 서비스 경영컨설턴트), 사회복지과(사회복지 용어해설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뷰티케어과(샴푸하기와 발관리 이론 및 실습), 호텔외식조리과(한식조리와 제빵기능사), 간호과(BLS provider 자격증 취득), 치위생과(전공수행능력향상과 직업기초능력향상), 방사선(전공기초교과목), 임상병리과(임상미생물실험과 임상화학), 스포츠레저과 (스키스노보드지도와 해양스포츠지도, 레저스포츠, 노인스포츠, 청소년성인스포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겨울방학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교육과 배현아 학생은 “전공과 연관된 특강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가고 흥미로웠어요.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좋으시고 수업도 지루하지 않아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며 “특히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까지 하게 되니 더없이 기쁘고 뿌듯합니다.

앞으로 방학 때마다 전공 관련 특강을 하며 재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을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송호대학교-횡성축협 공동설립 ‘횡성축협한우대학’ 자랑스러운 1기 졸업식



“명품 한(韓) 브랜드 횡성한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지난 1월 4일 입학식을 올린 횡성축협한우대학이 2월 19일 횡성축협 대회의실에서 제 1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번 졸업식은 ‘한우 산업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입학생들이(총 84명)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전원 졸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월 4일 개강한 한우대학은 송호대학교(평생직업대학)와 횡성축협이 횡성한우의 경쟁력 향상과 브랜드 세계화,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위해 공동 설립했으며 입식·번식 과정과 사양·사료과정 등 2개 과정으로 7주 동안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한규호 횡성군수, 한창수 횡성군의회 의장, 이기평 송호대학교 총장 및 대학관계자, 졸업생 가족 등 120여명이 참석해 이들을 축하했다. 졸업생 대표로 졸업증서를 받은 엄광섭씨(58)는 “횡성축협한우 농장의 자부심이 한층 커졌다”면서 “이번에 받은 교육을 한우사육에 다양하게 적용시켜서 한우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선민 기자

●●● 신입생을 만나보다 ●●●

16학번 새내기들의 다짐

▼ 호텔외식조리과 정승환

저는 한식, 일식, 중식 자격증 취득 목표를 늘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여 저의 기술을 세상 사람들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 유아교육과 박예원

저는 꿈과 희망이 있는 송호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유아교육과를 선택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서 졸업 후에는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또한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아이들의 심리를 깨닫고, 잘 놀아주고, 협동심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교사가 되어 항상 웃는 얼굴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송호의 딸이 될 것입니다.

▼ 방사선과 박정현

대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취직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보다 부담감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담임선생님의 존재는 이제 없고 매 순간 나의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지만 그만큼 성숙해질 나이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대학생활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을 즐긴다는 다짐으로 현명하게 보낼 것입니다.

▼ 대명리조트과 한가람

저는 대명리조트에 취직하겠다는 각오하나로 입학하였습니다. 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바리스타자격증, 조주자격증, 중국어자격증, 컴퓨터자격증 등을 꼭 내 것으로 만든 후 완벽한 서비스인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의 말씀과 교수님의 말씀을 최대한 수용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에도 대명리조트에서 경력을 쌓아 MVL 호텔에서도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과에만 있는 PA제도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간호과 홍유정

제가 간호과에 들어온 커다란 이유는 취직이지만 친언니께서도 간호사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고등학생일 때 나이팅게일이라는 동아리에 참여하여 간호사에 대해서 미리 배워보았는데 그때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간호과를 수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석으로 졸업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이고,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취직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두 번째 목표입니다.

▼ 임상병리과 백새록

대학생이 되어서 매우 새롭고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 다짐하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학생 새내기한테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항상 다짐하는 이 문장을 기억하며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선민·전민지 기자

새내기를 위한 우리대학교 캠퍼스 투어



1번 송호관에는 이사장실, 총장실, 법인사무국, 대학본부, 산학협력단, 취창업지원센터, 카페, 편의점, 건강보건실, 뷰티케어과, PC 실습실, 세미나실, 평생직업교육대학, 평생교육원이 있다. **2번 창조관**은 종합강의실, 유아교육과, 관광(대명)리조트과, 사회복지과, 어학실, 무대/공예실, 기악실, 동작실, 식음료실습실, 바리스타실습실이 있다. **3번 보건과학관**은 간호과,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보건행정과, 학과별 독서실, 가상병원, 실습실이 있다. **4번 도약관**은 방사선과, 송호대학교 교회, 예배당, 실습실이 있다. **5번 웰빙관**은 호텔외식조리과, 조리식품분석실, 동양조리실습실, 호텔조리실습실, 제과제빵실습실이 있다. **6번 월계관**은 스포츠레저과, 실내체육관, 웨이트 트레이닝실이 있다. **7번 진선미관**은 도서관, 구내식당, 열람실, 정보검색실, 3층에는 여자기숙사가 있다. **8번 실습동**은 실습을 하는 곳이다. **9번 예지원**(남자기숙사) **10번 예지원**(여자기숙사)으로 각 기숙사에는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탁실이 있다. **11번 대운동장**, **12번 농구장**, **13번 주차장**, **14번 연못**, **15번 정문**으로 배치되어있다.

김한솔 기자

●●● 컬럼 ●●●

진정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향한 발걸음

이은경(유아교육과 교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간혹 우리에게 한국적 민족주의를 지양해야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혹자는 민족주의야말로 다문화사회로의 길을 막는 방해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민족주의는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연대와 독립을 가능하게 했으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극단적 민족주의는 타문화를 멸시하고 자문화의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무분별한 다문화주의로의 선망은 오히려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실하여 잘못된 다문화주의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친 민족주의나 중심 없는 다문화주의가 현대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글로벌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이념적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세계화, 세계시민주의가 다문화주의를 완성하는데 절대적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한다는 편협한 생각도 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한민족의 고유한 가치가 타문화의 새로운 가치와 접목하여 독창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창조할 때 민족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글로컬리즘(glocalism)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문화사회는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러 개의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화해하여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작은 노력과 땀방울이 모여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다문화주의도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하나하나의 문화들이 모여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것이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서 'multi'는 여러 개의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이념적 가치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즉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며 평화를 꿈꾸는 그런 사회를 추구한다. 따라서 한국의 실정과 현실에 맞는 한국적 다문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부 다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서구의 다문화정책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심각해질 때에는 커다란 사건으로도 이어진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타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편견을 배제하고 문화적 나르시시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타문화에 대한 편견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글로벌 시대에 자기문화만 우월하다고 자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는 타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형성될 뿐 아니라 여러 문화적 관계 속에서 그들만의 정체성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다문화사회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 서구의 오랜 다문화적 경험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다문화정책과 교육모형을 만들어서 현실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소수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오랫동안 순혈주의적 의식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수 있는 다문화 인식교육이 유아기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노력과 지속적인 성찰은 미래지향적인 다문화주의로의 길을 활짝 열게 만들 것이다.

우리학교에 새로 오신 교수님 & 조교선생님



보건행정과 정현정 교수님

1. 송호대 오신 계기
- 전공과 관련된 학문과 의료기관에서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노하우를 더하여 보건의료인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송호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2. 좌우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자.

3.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보건행정과의 교육 목표인 "창의적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보건행정 전문인을 양성" 하기 위해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력과 능력을 겸비 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안내자의 역할과 함께 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 할 것입니다.

4. 과 학생들 첫인상
- 밝고 순수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정도 많아 보여서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5.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 젊음의 모든 열정을 쏟아 미래의 좋은 결과를 위해 현재의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세상과 함께 소통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리더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관광(대명)리조트과 이채림 조교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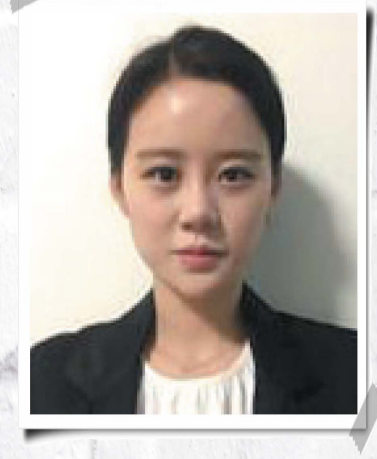
1. 송호대 오신 계기
- 상지대에서 관광학부 조교로 일할 때에 맺어진 인연에 학과 조교채용 공고를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2. 좌우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 제 좌우명은 "뭐든 즐기자"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제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된다면 일 하는 것이 더 편해지고 실수도 줄어드는 직접적인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3.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앞으로도 쭉 송호대학교 관광(대명)리조트과에 있으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송호대에서 가장 멋지신 채용식 교수님과 이덕원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조교를 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4. 과 학생들 첫인상
- 처음에는 제가 오히려 낯을 가리는 편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너무도 밝게 웃으며 "조교님~"이라고 불러주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명 한 명 개성이 있고 무엇보다 너무 착해보였습니다.

5.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 멋진 두 교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아무 탈 없이 졸업 하고, 졸업하고도 반드시 멋진 사람이 되어 만나기를 바랍니다!!^^



임상병리과 박선미 조교선생님

1. 송호대 오신 계기
- 2016년도 졸업생이라 새로운 사람보다는 더 잘 알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기개발을 위해 왔습니다.

2. 좌우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 '화양연화'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3.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ASCPI (외국임상병리사면허증)면허증과, 토익, 학교 내 비학위과정 수업을 들으며 여러 자격증을 딸 계획입니다.

4. 과 학생들 첫인상
- 저희 신입생 1학년 학생들은 순수결정체라고 할 만큼 깨끗하고 맑은 모습입니다. 누구라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항상 밝고 예의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 3학년 학생들은 학교시험과 국시공부에 몰두하고 학과 일을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아이들입니다.

5.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 어디를 가더라도 "저 아이, 정말 좋은 아이야"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저 아이는 안 될 애야"라는 소리는 듣지 않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교이자 졸업생이니까 필요 할 땐 거리감 없이 찾아오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밝았으면 좋겠고 웃으면서 졸업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신문사 정기워크숍

Grand Master Class Big Question 강연

-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다 -





TV에서 해주는 강연은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Grand Master Class Big Question'처럼 강연을 들으러 간 경우는 처음이었다. 기자 특강으로 이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만약 내가 일이 생겨서 이 강연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에게 있어서 이 강연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Grand Master Class Big Question' 강연은 '상실의 시대'라는 주제로 총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내가 들은 날짜에는 송길영, 데니스 홍, 김정후, 진중권, 정여울, 이어령,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의 총 7명의 유명한 연사들이 1시간씩 강연을 했다. 7명의 연사들은 각기 다른 내용으로 강연을 하였지만, 나에게는 하나하나가 전부 신기하여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 중에서도 나의 가슴을 가장 두근거리게 한 강연은 정여울 연사의 '진정 나 자신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이다.

예전의 나는 나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였다.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나?', '내가 원하는 게 이건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만의 의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대로 끌려 다니기만 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식의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정여울 연사님의 강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았다. 내가 무얼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신재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뿌듯하고, 속이 시원하달까? 기분이 좋다.

나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우물만 파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물 또는 사건에 흥미와 관심이 있으면 그것에만 신경을 쓰고, 이외의 것에는 눈길조차 두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강연은 나의 관심 분야도 아니었고, 정말 우연한 계기로 강연을 듣게 되었지만 내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만들었다. 또한, 강연을 들은 후에는 나의 고민거리도 해결이 되었고 예전에 보기 싫었던 나의 모습도 변화시켜주었다.

나는 잠깐 상상해 본다. 이렇게 우연찮은 기회로 나를 변화시켜주었는데, 만약 내가 관심을 갖지 않은 다른 분야에 눈을 떴을 때는 '나'란 존재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가 된다.

신재영 기자

영화 '귀향' 감상평

지난 3월 1일 영화 '귀향'을 원주 'ㅁ'영화관에서 보았다. 영화 '귀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나도 개봉 전부터 관심 있게 눈여겨보았던 작품이다. 왜냐하면 위안부라는 역사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여 우리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한 국인이라면 무조건 봐야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다. 더구나 삼일절에 이 영화를 보았으니 내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영화의 배경은 일제의 억압 하에 조선의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갔던 1930년대이다. 영화에는 그 당시 시대상과 문화적 배경 등이 잘 나타나 있었다. 예를 들어 순수하게 숲속에서 노는 소녀들의 모습, 초가집의 모습, 마을의 구조, 우리나라 전통 괴불 노리개 등 우리의 과거 속에 묻혀 있었던 삶의 모습이 등장하여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이 잘 드러났다.

1943년 14살 정민은 어느 날 갑자기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 그리고 함께 끌려온 영희를 만나 기차에 실려 알 수 없는 곳으로 실려 간다. 거기서 정민과 여러 소녀들은 일본군에게 끔찍한 짓을 겪게 된다.

나는 영화를 다 보고 영화관에서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일본의 만행에 분노를 했고 소녀들이 너무 가여워서 가슴이 먹먹하고 슬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제작후원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후회가 되었다. 영화는 스토리 진행도 좋았고 감동도 주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잘 표현하였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무당이라는 소재가 등장하여 의아했다. 그것이 영화를 감상하는데 방해하지는 않았으나 무당할머니의 스토리가 조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나는 이 영화를 우리대학교 학생들 뿐 아니라 온 국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추천 하고 싶다. 이 영화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제작된 영화이다. 무려 14년 만에 세계각지 75,270명의 후원으로 개봉되었다.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전 세계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인 만큼 우리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감독에 말에 의하면 위안부의 실상이 영화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고 한다. 하지만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들만 표현하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잔인한 장면만 각인 되므로 완곡하게 표현을 하였다고 한다.

위안부에 몇 십만 명의 소녀들이 끌려갔고 그 소녀들 중 238명만이 돌아왔고 현재 46명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영화가 다 끝난 후에도 계속 가슴을 후벼 팠다. 앞으로 위안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도연 기자

학생들의 발언대

송호대 학생들의 겨울방학이야기

◆ 강지수(유아교육과 3학년)

저는 방학동안 대명 비발디파크 키즈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유아교육과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수업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며 아이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1학년 때 강의하셨던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명직장어린이집을 새로 개원하여 원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정말 반가워서 아르바이트 끝나기 전날 교수님의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도 귀엽고 선생님들도 다 좋으시고 어린이집도 깨끗하고 훌륭했습니다. 교수님과 오랜만에 대화도 많이 나누고 어린이집 구석구석을 구경하였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지난 겨울방학 때보다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알차고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석준영(방사선과 1학년)

저는 방학동안 고등학교 친구들과 1월 중순에 5박 6일의 일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니 10대의 마지막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을 모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좀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되기 위해 부모님의 도움 없이 알바를 해서 100만원을 모아 여행을 갔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정으로는 간사이에 있는 도시, 고베, 교토, 오사카를 갔습니다. 고베에는 와규를 먹기 위해 갔고 나라에는 사슴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나라에 갈 때는 기차를 탔는데 일본기차가 한국기차보다 더 포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보니 친구들과의 우정도 더 돈독해지고 10대의 마지막 우정여행을 의미 있게 보내고 와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 신재영(사회복지과 2학년)

저는 이번 겨울방학동안 충청남도 홍성에 계시는 외할머니 댁에서 1월 한 달 동안 동생과 함께 지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는 동생의 학업 문제로 동생 혼자 보낼 수 없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외할머니 댁에는 명절날이나 가족 행사 같은 날 외에는 간 적이 없어서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없이 외할머니 댁에서 지낸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고 보니 '왜 불편했는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다보니 외할머니라는 존재가 푸근하고 고마운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달이었지만 외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현정(관광대명리조트과 1학년)

저는 겨울방학동안 친구들과 우정을 쌓기 위해 5박6일 제주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카멜리아힐, 성산일출봉 등에 가서 우정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정 중에 일출을 보기위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산일출봉에 올라갔던 일이 제일 생각납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아쉽게도 일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기분에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5박6일이라는 여행기간동안 항상 좋은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트러블이 있었지만 서로서로 대화하며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김한솔 기자

학과 탐방

관광대명리조트과





1. 관광(대명)리조트과 소개

(주)대명레저산업(전국 12개 리조트)과 고용 연계형 협약을 통해 '3+2+1 SD Track'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학과는 대학교육과 산업체간의 밀도 있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관광(대명)리조트과는 레저분야에서 브랜드 파워 최고 학과에 접목시켜, 대명리조트에서 요구하는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현장교육과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고용 연계형 학과이다.

'3+2+1 SD Track'이란 3학기 대학과정. 2회 실습과정, 1회 인턴십 과정을 뜻한다. (주)대명레저산업과의 협약을 통해 확실한 취업의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하여 높은 취업률이 보장되는 학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다른 산업체로의 취업대상자들에게는 대명리조트와 비슷한 취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교과과정운영의 형평성과 균형성의 유지를 통해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주)대명레저산업의 전국 12개 업장을 비롯하여, 리조트 관련 산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학생들에 대한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나요?

스펙을 위한 취득 자격증으로는 국가공인 CS(Customer Satisfaction의 약자로 고객만족을 의미) 관리사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조주기능사자격증, 서비스 경영컨설턴트, 관광 통역 안내사(영어, 일어, 중국어 등),국제회의 종사자, 호텔 서비스사, 외식*식음서비스기획 2급 등이 있다.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광(대명) 리조트과 에서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운다, 리조트에 근무하기 위한 맞춤 교육으로 부대업장에서 고객들과의 접점시점에 필요한 서비스에 관련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피분야 이론에 대한 이해와 바리스타 과정의 기초학문을 배우며, 일반적인 관광 현상과 리조트 사업 등 관광산업에 대해 배우고, 제2외국어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회계학습을 통해 리조트 서비스 운영에 대한 내용과 현장중심교육을 기초로 하여 식음료의 구매, 저장, 제조 및 판매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학습한다. 리조트서비스 종사자의 셀프 및 상황대응 리더십 등 고객만족을 위한 리더십을 배양한다. 국제적인 서비스 매너의 반복적인 학습으로 관광의 세계화에 기여하도록 교육, 훈련하는 교과목들을 배운다.

2학년 2학기에는 대명리조트 현장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한다. 실습장에서 대명리조트 직원으로 근무하여 자신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현장 적응 능력을 향상 시킨다. 고객감동과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천해 갈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

3. 관광(대명)리조트만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요?

한국 CS표준 교육센터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한국정보평가원에서 공식지정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6~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중 협약 학과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교육과정을 통해 2009년 (주)대명레저산업과 고용 연계형 학과로 개편되었다.

국내최초 고용주문형 학과이며, 관광(대명) 리조트과와 (주)대명 레저 산업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실무능력을 향상 시키고, 성과지향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자격증 취득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김도연 기자

신입생 적응능력 현장답사 프로그램









관광(대명)리조트과는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16학번 신입생 32명과 복합생 포함 2학년 30명 그리고 교수님들이 함께하는 신입생 적응능력을 위한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2박3일의 일정으로 기업 대명에 관한 규모, 시스템, 연혁 등을 소개 하는 것 뿐 아니라 예비 취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이 서로 소개하는 시간과 홍천 대명의 유명한 오션월드 체험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객실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기 중 실습 뿐 아니라 졸업 후 취업하게 될 대명 기업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사회적응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김한솔 기자

관광(대명)리조트과 M.M 체결식

3월 18일, 창조관 식음료 실습실에서 관광대명리조트과 15학번과 16학번 학생들이 제4회 멘토링 체결 서약식을 가졌다.

이 체결식에서 학생들은 학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함과 동시에 멘토·멘티로서의 역할과 올바른 대학문화 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였다.

관광(대명)리조트과의 멘토링 체결 서약식은 2학년이 1학년을 1:1로 맡아서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후에는 1학년이 2학년으로 진학하여 그동안 배운 것을 다음 신입생에게 멘토가 되어 안내하고 가르쳐주는 과정이다. 멘토링 체결 서약식은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선·후배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며 상호신뢰 뿐 아니라 관계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김한솔 기자

횡/성/소/식

횡성군, 서울대·경찰대 등 다양한 대학 합격생 배출 쾌거

횡성군은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를 비롯하여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다. 서울대(건축학부) 1명, 경찰대 1명, 국군간호사관학교 1명이 합격했고, 그 외 중앙대(2명), 연세대(1명), 경희대(1명), 인하대(1명), 광운대(1명), 숭실대(1명), 한국과학기술대학교(1명), 단국대(1명), 춘천교육대학(2명), 지방거점대학으로는 전남대, 충남대, 조선대 각1명씩 합격생을 배출해내어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정시모집에서는 한국외대(1명), 경희대(1명), 숭실대(1명), 서강대(1명)등 합격생이 나와 수시와 정시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현재 군과 학교, 그리고 인재육성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생과의 1대1 개별화 진로교육, 진학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인재육성관은 공교육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심화학습을 운영해오고 있다.

소선민 기자

횡성중학교 전국 최초 '마을교사' 운영

– 22명의 마을주민이 곧 스승이 되어 책임감을 갖고 학생교육에 참여

횡성중학교(교장 김동길)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사제'를 추진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을교사제는 '마을은 학교의 스승'이라는 슬로건으로 학생들의 인성과 진로교육에 지역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자유학년제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횡성중학교는 김동표씨 등 22명을 마을교사로 위촉했으며 릴레이식으로 학생들의 인성함양, 진로상담을 위한 교사역할을 담당한다.

마을교사제는 지역출신 지도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인생스토리, 애향심 등을 교육현장에 적용시키면 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특히 학기말 고사 후부터 방학 전인 교과학습 취약시기에 마을교사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규교과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기간에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일깨워주고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을교사들을 통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이 찾아가는 멘토링'도 제공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면 벌칙으로 마을교사를 방문해야 한다. 학생들은 마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마을교사제를 기획한 이용훈 교감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기부는 봉사가 아닌 그 지역주민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취지로 마을교사제를 추진했다. 이것이 지역 전체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지 기자

퀴 즈

퀴즈 풀고 강원연극제 공연 티켓도 받고

1. 우리대학교 산업체 위탁과정 대상 학과는?
2. 임상병리과 국가고시 합격률은?
3. 최근 우리대학교는 어느 병원과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는가?
4. CSIC 평가에서 우리대학교 순위는?
5. 구내식당이 있는 건물명은 무엇인가?

▷참여기간 : 제 33회 강원연극제 공연 관람일 내
(공연일:16.04.04-04.11)
▷참여방법: 010-7277-1226 정답을 문자로 전송하세요.
(학과, 학번, 이름 기재)

도서 추천 자료

고가 후미타케,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에 1인자인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가 후미타케의 저서이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공부한 철학자와 세상에 대한 불만과 자기혐오, 열등감에 시달리는 청년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하며 사람들이 숱하게 고민하는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려낸다.

책의 목차를 보면 〈트라우마 부정하기,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간다〉 일반적인 자기계발도서로 보일 수도 있으나 수많은 자기계발도서들과는 다르게 '안 되는 것은 그만두어라' '외부의 환경이야 어떻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말하며 '하면 된다'라는 식의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했으며 모든 과거는 나의 책임이고 모든 미래는 스스로의 용기에 달려있다고 말이다.

책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도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사더라도 용기를 갖고 모든 고민의 시작인 타인의 시선과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메시지를 '미움받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철학자는 '인생에 고민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 고민은 인간관계에 있으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선을 긋고 내 과제가 아닌 것에는 경계선을 정하고 타인의 과제는 버리는 것이 곧 인생의 짐을 덜고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말한다. 청년은 철학자에게 "남에게 미움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하지만 철학자는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 순간에 달라질 걸세"라며 누군가에 의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매 순간에 무언가를 늘 끊임없이 결정하며 살아가고, 그 찰나의 순간이 현재에서 쏜살같이 과거가 되고, 그 수많은 순간들이 모여서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함을 두려워하여 혹은 타인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타인의 틀에 나를 맞추어서 순간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삶이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거절을 못하는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면, 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미움받을 용기를 듬뿍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민지 기자

